



노벨상 수상 과학자의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The Vega Science Trust〉

글_ 김인순 전자신문 기자 insoon@etnews.co.kr

지난 8월말 199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헤럴드 크로토(Harold W. Kroto · 66) 영국 서섹스대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탄소 60개로 이뤄진 풀러렌(Fullerene)을 발견해 노벨상을 수상한 크로토 교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일이다.

그가 추천한 사이트는 바로 'The Vega Science Trust(http://www.vega.org.uk)'이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세계 어린 이들에게 과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의 수많은 과학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이 수록된 보기 드문 질 높은 사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트를 접속하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사이트들과 달리 붉은 바탕을 사용한 것이다. 아이들이 다양한 색감을 위해 다른 사이트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붉은 색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 사이트는 과학프로그램, 교육자료, 베가 사이언스 어워드, 웹 리소스, 뉴스, 사이언스 미디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메뉴는 다시 세부 내용으로 연결된다.

온라인 사이언스 프로그램(Online science program) 코너의 기록 보관소에서는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밝혀 노벨상을 수상한 막스 페루츠(Max Perutz) 박사 등 세계 석학들의 살아온 이야기에서부터 과학적 성과와 뒷이야기가 가득 수록돼 있다.


토론 코너에서는 유전자조작음식의 안정성을 비롯해 나노기술, 무한한 에너지 등 11개 주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시리즈로는 인간 복제의 위험성과 핸드폰 사용의 안전성, 감정을 가

진 로봇 등 최근 과학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내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워크숍 코너에서는 '버키볼(Bucky Ball)' 워크숍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버키볼이란 탄소 60개로 이뤄진 풀러렌을 일컫는 말로 크로토 교수가 아이들에게 풀러렌을 쉽게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있다.

풀러렌은 다이아몬드만큼 강하면서도 아주 작은 물질을 새장처럼 가둘 수 있으며 미끄러운 성질이 있다. 또 다른 물질을 삽입할 수 있게 열리기도 하고 튜브처럼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물질은 전지·유탄체·초전도물질·고분자·촉매·컴퓨터 기억소자·우주항공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 올 차세대 나노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자료에서는 버키볼 워크숍은 물론 영국 서섹스대 창조과학센터의 각종 학습 자료를 볼 수 있다. 또 각종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웹 리소스 코너에서는 베가 사이트 외에 각종 과학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소개된다.

크로토 교수는 "베가 사이트는 전세계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과학교육 공간"이라며 "이 곳을 통해 창조적인 과학자가 배출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송실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